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 전주서 개막

지역상권 활력 위해 5월 10일까지 전국서 개최... 전국 200개 유통채널 할인·행사 풍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6 동행축제가 전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4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진행되며, 잠재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최근 중동전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화려한 세리머니 대신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막식과 연계해 전북대 일림의거리와 대화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지역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6 동행축제'가 전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에 돌입했다.

막 판매전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상생콘서트는 3천석 규모 좌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더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대규

모 소비촉진 행사가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확대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는 다채로운 할인 행사와 이벤트가 이어진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쿠팡 등 93개 플랫폼이 참여해 K뷰티, 패션, 식품 등 소상공인 제품 1

만8천여 개를 대상으로 할인전을 진행한다.

특히 엄선된 대표 상품 300개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기획전에서는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TV 홈쇼핑 채널에서도 가정의 달과 연계한 적립금 및 사은품 프로모션이 마련됐다.

오프라인에서도 전국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전과 이벤트가 펼쳐진다. 인천, 대구, 경기 안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플래시마켓,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류 할인행사와 수익금 기부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생활협동조합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의 소비가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된다"며 "축제 기간 전국 곳곳을 찾는 여행과 소비가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사업장 실무자 대상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과 사업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전주를 시작으로 5월 대전, 6월 여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매년 전국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사업장 실무자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과 실무자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어 현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실무 맞춤형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교육은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신고 방법, 업무 처리 과정

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제도 교육 이후에는 1대1 상담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수강생들은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 겪은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을 활용한 신고서 입력 방법과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도 함께 진행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최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전용 신청 웹페이지도 새롭게 개설했다. 교육 희망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내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돼 모집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용 페이지에서는 신청 내역 조회와 서류증 발급도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부실자산 효율 처리·수익 창출 기대

전북은행-새만금데이터센터, 부실채권 회수·처분·지역개발 연계 확대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처분, 지역개발 연계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13일 본점에서 개발 컨설팅·투자자문 전문기업 새만금데이터센터(주)와 부실채권 회수·처분 및 지역개발 연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투명한 회수와 처분은 물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지역개발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13일 본점에서 개발 컨설팅·투자자문 전문기업 새만금데이터센터(주)와 부실채권 회수·처분 및 지역개발 연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자산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채권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대상 물건의 세부 정보 제공, 채권 양수도 및 입찰, 공동사업 및 자본 참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데이터센터(주) 김재광 대표와 전북은행 여신지원본부 정선기 부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데이터센터(주)는 부동산과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과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개발 컨설팅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주요 금융기관과 시행사, 건설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금융 조달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외국인 고용 기업 체류관리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에 대응해 기업 인사담당자의 체류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지역특화형비자외국인 고용(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 비

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을 앞둔 도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4일 고창군과 정읍시를 시작으로 김제시, 남원시, 임실군, 익산시, 부안군 등 도내 7개 시·군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 복합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시의회, 군청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전북개발공사는 13일 공사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공사가 청년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 분석,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해, 심리학

적 관점에서 살펴본 적극행정 저해 요인과 조직문화 변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론 중심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병행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공사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 역량과 동기를 동시에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축협 조합장들, "농협 자율성 보장돼야"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최근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조합운영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북농협 7층 상환실에서 '2026년 1차 전북특별자치도조합운영협의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 방향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근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도 유사한 우려와 건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농협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자 협동조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세계협동조합연맹(ICA)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운영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속한 법 개정보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